



이사장 이강희

새 천년의 인형인

우리 교장의 자랑으로서 힘든 부두 노동이지만 자신들의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박봉의 일부를 모아 30여 억원이라는 거액으로 숙원이었던 인항고등학교를 세우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1500여 후학들에게 은혜로운 배움의 터전을 마련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4천여 인천 향만 근로자들의 육영 봉사가 이어진 지 어느덧 열번째를 맞이하는 교지 발간에 즈음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곁에 성령 다가선 21세기는 일대 문명사적 대전환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과거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됐듯, 산업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로 옮겨가는 첫 시점이 바로 21세기입니다. 새로운 세기는 과학 기술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전세계가 하나되는 지구촌 시대이자 기술이 곧 힘의 원천인 기술패권시대입니다.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물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합니다. 경쟁, 변화, 소비자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잘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보다도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길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을 위한 시대적 과제가 우리의 당면한 문제임은 미래를 인간이 어떻게 설계하고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인간의 능력과 심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란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룩하려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학의 발전 없이는 우리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본 교에서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에 전심 전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학생, 이기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학생, 창의성이 부족한 학생을 양산한 임시 위주 교육의 지식의 양만 강조해 온 교육에서 주어진 환경을 발전의 시발로 삼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봉사과 회생을 할 줄 아는 학생, 공동체 의식을 지닌 학생,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질로 승부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배움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학교에는 학생들이 창조해 내거나 스스로 이끌어 가는 학생 중심의 문화가 극히 미약한데, 학생들 상호간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등 수업 방법의 다양화를 꾀어 학생들 스스로 자기 문화를 찾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교육을 강화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 줌으로써 우리 사회를 문화적 상상력과 철학적 상상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아울러 제대로 된 민주 시민의식, 자율과 평등, 책임, 상호 존중에 관한 의식을 심어 주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취지에 입각하여 인형인들은 학교에서의 배움과 경험을 통하여 성숙한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속에 있는 밝은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시대변화에 둔감하고 자기발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낙후되기 십상인 현실에서 부단한 절차타마(切磋琢磨)의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찍이 노자도 나날이 새로워지고, 일을 하고

는 자랑하지 말며 공을 세우고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경계하였거니와 동서고금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보다 높은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용맹정진과 철저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공자는 이를 수기안인(修己安人)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갈고 다듬은 뒤에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회활동을 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갈파하여 부지런한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심과 배우는 열정을 지닌 자기만의 상(象)을 만들어 가는 자랑스런 인행인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환경의 전체적인 개선으로 학교 교육 풍토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학교 구성원의 성취의욕 고취와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데 배가의 노력을 경주한 끝에 총 공사비 31여억 원을 들여 건축면적 1016평, 관람석 744석을 갖춘 지상 3층의 최신식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인행인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각종 행사 및 체육 시설 이용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교육 정보화 시대에 따른 발빠른 대응책으로 교직원 1인당 초고속 컴퓨터를 1대씩 갖추게 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다양한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어 교단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교실마다 냉·온방 시설을 완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상하고 열정적인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학부모님 가정에 무한한 건승을 기원하며 새 천년을 맞아 황해벌에 새롭게 펼쳐갈 인행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